

광주 영화인들 비평 목소리 담은 잡지 나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영화 비평지 '씬1980' 창간 '광주비디오상영투쟁' 모색 광주 영화 전국에 홍보 역할

광주 영화인들의 비평의 목소리를 한 데 모은 영화잡지가 나왔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을 창간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2016년 조직위 내부 갈등으로 불거진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사태 이후 광주영화계를 활성화시키고자 출범한 단체로, 광주독립영화관 인착, 광주여성영화제 개최, 청소년 영화제작 워크숍·영화비평가 양성과정 등을 지원하는 단체다.

잡지는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광주시 영상·영화진흥조례' 시의회 통과 등 최근 광주영화의 발전 양상에 발맞춰 다양한 비평의 목소리를 담고, 전국에 광주 영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기획했다. 제호 '씬1980'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영화 용어 '씬(Scene)'을 결합한 단어로, 영화운동 중 '광주비디오상영 투쟁'의 현대

적 의미를 모색하며 오늘날의 광주 영화를 기록, 비평, 활성화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9월 5일 발행된 창간준비호에는 영화전문지를 발행하기까지 광주 영화인들의 고민과 활동내용 등에 무게를 뒀다. 특히 '우리는 왜 광주에서 영화잡지를 만들려고 하는가'에서는 광주 영화의 성장을 위해 비평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한재섭 편집장의 의견이 실렸다.

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의 '광주비평열병'에서는 최근 진행된 광주 독립영화관 '영화비평가 양성과정'을, 최성욱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의 '광주의 영화인이 미래의 영화인을 만나다'에서는 지난 7월 광주영상박물관에서 열린 '광주영화 in 네트워크파티'를 되돌아보며 광주영화와 비평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또 단편영화 '신기록'으로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이정호 감독 인터뷰도 게재돼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김지연 이사장(왼쪽)과 잡지 '씬1980' 편집위원들. ©최성욱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제공>

고충, 차기작 소개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수업 중 '성희롱 영화 상영 논란'에 대한 분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며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김근'에 대한 김수진, 김홍성, 윤여리, 장경민 등 신진 비평가의 비평 등도 수록됐으며, 광주지역 영화축제·교육 행사 안내, 대안 영화관 소개 등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잡지는 광주극장, ACC시네마테크와 의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문화기관에 대한 정책제언·발굴, 제도비평 등을 담아

낼 예정이다. 한재섭 편집장은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시도하는 지역 최초의 영화잡지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이 잡지를 통해 지역 영화계에 대한 관심을 부르고, 지역에 영화비평이라는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씬1980'은 격월로 발행되며,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문화예술관련 기관이나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등 무대에

8일 금호아트홀 양인모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사진)가 오는 8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무대를 갖는다.

이날 공연은 유·스퀘어 문화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시리즈'로 기획된 콘서트로, 피아니스트 홍사현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날은 프란츠 리스트의 '라 카프리치오사'로 시작해 쇼베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한다.

기유맹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어뮤즈먼트, 아리아 그리고 12개의 카프리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0번'도 무대에 올린다.

양인모는 2015년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자이자 빅토르 예리메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1위 수상자다.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엄 프리드를 사사, 최고연주자과정에서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전석 5만원. 28일 열리는 '김태형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티켓까지 합해 6만 원에 살 수 있는 '양인모, 김태형 리사이틀 패키지'도 7일까지 살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양림동 한의원 미술관서 '골목콘서트'

지역 뮤지션 어쿠스틱 공연도

인문콘서트 '2019 골목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양림동 한의원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터줏대감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지역민들이 동네 공간의 기억을 담아내고, 이를 이웃들과 나누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이날 골목콘서트에서는 조광철 학예사가 '사적 이야기'를 매개로 과거 사적동과 양림동의 변화 모습을 들려준

다.

가을 오후의 낭만을 더해줄 지역 뮤지션의 어쿠스틱 공연도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골목콘서트'는 우리 동네 공간에 숨은 역사를 재발견하고 참여자가 직접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올해 12월까지 총 5개의 테마로 전국 30개의 골목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학상 '전쟁의 슬픔' 무대에 오른다

내년 10월 '아 문학페스티벌' 6~11일 전문가 워크숍

제2회 아시아문학상 '전쟁의 슬픔'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2회 아시아 문학상 수상 작가인 베트남 출신 바오인의 대표작 '전쟁의 슬픔'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은 6~11일 제작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세계적 명성의 덴마크 오딘 극단, 진도 씨갯길 연희회, 광주 지역 극단 등이 참여한다.

문화전당은 워크숍 결과물을 토대로

공연 계획을 세워 내년 10월 열리는 제3차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작품은 아시아 현대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식의 융복합 공연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문화전당은 지난 8월 소설가 한승원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분과 운영 등을 통해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진식 아시아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아시아 현대 문학의 가능성을 찾고 문학이 문화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다형김현승문학축전 예산 없어 못 연다

다형기념사업회 "광주시 지원 예산의 10% 불과"

해마다 가을 이맘때면 열리던 다형 김현승 시인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형기념사업회(회장 장정식)는 올해 예산상의 이유로 다형김현승문학축전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시의 올 지원액이 예산의 10%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문학축전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현대한국문단사를 대표하며 광주의 문화인물 브랜드로도 손색없는 다형의 문학정신을 선양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지원금으로는 문학적 업적과 명성에 누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념사업회는 올 초 광주시가 공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다. 선정 결과 다형기념사업회는 고작 300만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액수는 광주문인협회 700만원, 국제펜 600만원,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400만원, 정소파문학제 400만원, 함림문학작가회 400만원, 아시아서적 시상상대회 400만원 등보다 지원금이 적다.

다형 김현승은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 문인이자 양림동을 근거로 활동하며 손광은, 문순태, 이성부 등 가리산 같은 제자 문인

을 배출한 시인이다. 문학관 하나 없는 광주에서 작품의 경향을 떠나, 많은 문인들이 흠모하고 문학성을 인정하는 다형 김현승의 존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 문화인물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형기념사업회는 최근 광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사업 지원금에 대한 제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념사업회는 "모 단체가 개최한 초등학교 대상 시화전 지원액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액이다. 이 금액으로는 다형의 인물브랜드화는 고사하고 되레 명성에 먹칠하고 세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념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이래 광주시에서 계속해 오던 기념사업 지원에 있어, 이 시장 부임 후 첫 예산배정이 이루어진 2019년은 기념사업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형기념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이 적어 올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은 자치행정과정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절차에 의해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상을 돌체' 공연 모습. <양상돌체 제공>

'양상을 돌체 with 백진주'

5일 광산문화예회관 정기연주회

광주예술진흥회(대표 최소형) 소속 '양상을 돌체'가 5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 '양상돌체 with 백진주'를 연다.

양상을 돌체는 목포시교향악단 단원 등 음악전공자들이 클래식 대중화, 저변화를 위해 결성한 광주 지역 연주 단체로, 지난 2015년 창단해 월봉한음악회, 사적도서관 단무지 연주회 등에서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었으며 이번 무대는 창단 4년만의 첫 정기연주회로 마련됐다.

이날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와 소프

라노 유경진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날은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비제의 '하바네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로드리게스의 '라 콤파르티타' 등을 무대에 올린다. '알라딘' 삽입곡 'A Whole New World',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삽입곡 '지금 이 순간', 드라마 '하얀개밥' 삽입곡 'B-Rosette' 등 다양한 삽입곡들도 연주한다.

소프라노 유경진과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가 각각 선보이는 솔로 무대도 마련된다. 백진주는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보니 앤의 'Sunny' 등을 연주한다. 무료 공연.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p>OK 당구장</p> <p>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야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p>	<p>진주공방</p>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p>	<p>광주갤러리경매장</p> <p>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p> <p>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p>	<p>완도전북</p> <p>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p>	<p>태극익스프레스</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학산운명감정원</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선 ☎ 010-8003-9000</p>	<p>그집고기</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p>	<p>고전방</p> <p>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p>
<p>초대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p>	<p>금강버티컬</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로스크린, 전동로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로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p>		